

大巡信條의 文明史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머리말	3) 信
II. 大巡信條의 概觀	4) 誠敬信綜合
1. 四綱領의 概觀	III. 三要諦와 他宗教信條와의 關係
2. 三要諦의 概觀	IV. 大巡信條의 文明史的 意義
1) 誠	1. 傳統性的 尊重
2) 敬	2. 普遍性的 強化

I. 머리말

지금까지 대순진리회의 신조에 관하여 안심·안신·경천·수도의 4강령과 성·경·신의 3요체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제 그 4강령의 전체 의미는 무엇이며 3요체의 전체 의미는 무엇이며 4강령과 3요체를 합친 신조의 전체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찰할 단계에 왔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네가지이며 그 종지를 실현하기 위한 신조에는 성경신의 3법언(法言)과 안심 안신의 2율령(律令)과 경천수도의 2훈전(訓典)을 지켜야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의 <5. 교리개요> 를 보면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종지로 하여 성경신의 3법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 삼는다)고 하였다. 동요람의 <7. 신조> 에는 4강령으로 <안심 안신 경천 수도> 와 삼요체로 <성 경 신> 을 들고 성경신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의 3요체는 3법언이라 하고 안심 안신은 2율령이라 하고 경천수도를 2훈전이라 하였다. 3법언이라고 한 것은 요(要)는 중요하다는 뜻이요 체(諦)는 분명하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고집멸도(苦集滅道)를 사체(四諦)라고 하는데 네가지 분명한 것이라는 뜻이다. 대순진리회의 요람에서 삼요체를 삼법언이라고 말한 것은 같은 뜻으로 이해되고 법은 진리를 말하므로 법언이라고 한 것은 진리의 말이란 뜻이니 3요체를 3법언이라고 한 것은 3요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요람에서 4강령중 안심 안신은 2율령이라 하고 경천 수도는 2훈전이라고 하였는데, 율령은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는 뜻이요, 훈전은 가르치는 법이란 뜻으로 다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람에는 안심이란 본연(本然)의 양심(良心)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안신은 모든 행동을 법례(法禮)에 합당케 하는 것이요 경천은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는 것이요 수도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심 안신이 주관적인 사람을 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강령이라면 경천 수도는 객관적인 하늘(天)이나 도(道)를 주로 하여 이루어지는 강령이다. 주관적인 사람의 마음이나 몸이나 객관적인 하늘이나 도가 본래 다른 것이 아니므로 안심하면 경천이 되고 경천을 하면 안심이 되며 또 안신하면 수도가 되고 수도를 하면 안신이 된다. 그러므로 요람에서 안심 안신을 율령이라 하고 경천수도를 훈전이라고 한 것은 안심 안신과 경천 수도가 표리의 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4종지는 대순진리회의 사상체계요 철학체계이다. 그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4강령 3요체의 신조를 지켜서 지상선경의 실현과 지상천국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 대순진리회이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인 지상신선인 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려면 인간의 본질 속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사회의 밑바닥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 종지로서 음양합덕 신인조화의 사상으로 인간이 신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명되고 해원상생 도통진경으로 지상세계가 천국이 될 가능성이 증명되었으며 그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일이 신조를 통한 수행수도이다.

II. 大巡信條의 概觀

대순신조는 대순종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믿어야 할 덕목이다. 여기에는 4강령과 3요체가 있는데 4강령은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주관적 요소와 하늘과 도를 깨닫는 객관적 요소가 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요 마음이 편해지려면 첫째 자연(하늘과 도)을 정성껏 모셔야 하고 둘째로 몸이 편해지려면 인간을 공경하고 사회를 신의로 살아야 한다. 안심은 경천과 수도에서 이루어지며 경천과 수도에는 정성이 깃들어야 하고 안신은 공경과 신의가 깃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4강령은 하늘과 도를 깨닫기 위하여 안심 안신하는 것이요 3요체는 4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경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조는 성경신이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1. 4綱領의 概觀

4강령은 안심 안신 경천 수도를 말하는데 안심 안신은 사람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말한 것이요 경천 수도는 사람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말한 것인데 안심하려면 경천해야 하고 경천하면 안심이 되며 안신하려면 수도를 하여야 하고 수도를 하면 안신이 되어 결국 안심 안신과 경천 수도는 일치되는 것이다.

여기서 안심과 안신으로 마음과 몸을 갈라서 말했지만 마음과 몸이 본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것이요 하늘과 도도 사람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가운데 하늘이 있고 도가 있으므로 결국 마음과 몸과 하늘과 도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과 하늘과 도는 본래는 하나를 이루고 있지만 그 각도를 달리하여 보면 각자가 또 따로따로 존재하고 따로따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조로서 4강령을 든 것이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겉으로 보기에 몸은 몸의 작용이 있고 마음은 마음의 작용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심신이 원론(心身二元論)이 나오고 기계론적 세계관(機械論的 世界觀)이 나오는데 그 이론을 대성한 사람은 데카르트(Descartes)이다. 데카르트는 환원주의(還

元主義)로 기계론적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동양에서는 생기론(生氣論)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모든 물질에 생기라는 것이 내재하여 그것이 물질로도 되고 생명으로도 되고 정신으로도 된다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적인 생기론적세계관(生氣論的世界觀)을 주장하고 있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 졌는데 몸은 물질이요, 마음은 정신이다. 물질과 정신은 엄연히 따로따로 있는 다른 존재여서 몸이 마음이 될 수 없고 마음이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른바 이원론적(二元論的) 견해요 몸과 마음이 다르게 아니라 하나를 이루어 몸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른바 일원론적 견해이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런 고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고 환원주의를 주장한 이래 서양에서는 이원론적 견해가 지배적이지만은 동양에서는 자고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 견해가 이어 내려오고 있다. 서양에서 심신이원론을 주장하는 근거는 인간의 경험으로 보아 모든 것을 그 근본으로 환원시키면 결국 최후에 남는 것은 정신(思惟)과 물질(延長)의 두 개뿐이다. 동양사람은 존재의 궁극적 실재(窮極的實在)가 물질과 정신의 두 가지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깊이 생각하고 좀더 깊이 체험하여 보면 물질과 정신이 거기로부터 발생하는 좀더 근원적인 실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氣)라고 불렀다.

이원론에 입각하여 물질을 주로 생각하는 이론을 유물론(唯物論)이라 하고 정신을 주로 하는 이론을 관념론(觀念論)이라 하는데 정신과 물질의 그 근원이 같다고 생각하는 이론을 유기론(唯氣論)이라고 부를 수 있다. 관념론이니 유물론이니 하는 사상은 모든 존재가 관념뿐이라던가 또는 물질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관념론이라 하더라도 물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유물론이라고 하더라도 관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념론을 유심론(唯心論)이라고도 하는데 유심론이나 유물론의 이 유(唯)자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 말하자면 관념(마음)이나 물질(몸)이 중심이라는 말이니 주관론(主觀論) 또는 주심론(主心論)이나 주물론(主物論)이라 하는 것이 옳다. 동양의 기사상도 기만있고 관념도 물질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가 주

동이 되어 관념도 물질도 생긴다는 뜻이니 주기론(主氣論)이라 하는 것이 옳다.

동양의 고전인 주역(周易)에서 우주의 궁극적 존재인 태극(太極)이 음양양기(陰陽兩氣)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주자(朱子)에 의하여 대성된 성리학(性理學)에서 태극을 이(理)로 보고 이기이원설(理氣二元說)로서 우주관을 삼은 이래 그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과의 선후(先後)문제로 주리설(主理說)과 주기설(主氣說)이 대립되어 왔다. 주자가 주리설을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도 퇴계(退溪)와 많은 유학자가 주리설을 따르고 있다. 한편 화담(花潭)을 위시하여 율곡(栗谷)같은 학자는 주기설(主氣說)을 주장하고 있다. 주심론(또는 주관론)이나 주물론보다는 유심론 유물론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기론이라는 말이 옳지만 유기론이란 말을 쓰기로 한다.

기(氣)사상은 중국고대에서 발생되고 특히 도교에서 발달되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곳이 곧 한국이다. 한국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고기(檀君古記)에서 단군이 산신(山神)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산신은 바로 신선(神仙)이다. 선(仙)은 경치 좋은 산중에 불로 장생하는 존재로서 인간이면서 신인 존재이다. 이 신선사상은 한국과 같은 금수강산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사상이다. 대개의 민족은 사람은 죽은 뒤에 신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지만 신은 육체가 없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불로불사하는 영원적 존재이다. 황량한 황토(黃土)의 모래 즉 황진(黃塵)에 시달리는 중국사람들은 불로장생할 수 있는仙境(仙境)은 중국 내에 있지 않고 중국 밖의 발해(渤海) 동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시황(秦始皇)은 불로초(不老草)를 구하기 위하여 동남동녀(童男童女) 수백명을 동쪽으로 보냈다고 한다. 또 불교가 발생한 인도는 너무 더워서 극락(極樂)은 해가 떨어져서 시원한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였고(서방정토사상西方淨土思想) 이스라엘은 사막으로 살기 힘들어 천당(天堂)은 죽은 뒤에 올라 갈 수 있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본래 경치 좋은 명산이 많아서 사후의 극락이나 천당보다도 바로 이 경치 좋은 산에 남아서 불로장생을 바랐다. 그것이 바로 신선사상이다. 신선은 산(山)에 사는 사람(人)이라는 뜻이다. 심신이원론에서는 몸과 마음이 다르고 사람과 귀

신이 다르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르고 현세와 내세가 다르지만 신선사상에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요 사람과 귀신도 하나요 현세와 내세도 하나이므로 사람은 육체를 가진 채 불로불사하는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사상이 바로 기일원론(氣一元論)이다. 기를 인정함으로써 사람은 신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가 농축(濃縮)되어 침전(沈澱)되면 물질이요 기가 생생하게 발동(發動)하면 생명이요 기가 정화(淨化)되면 정신이요 마음이요 신이다. 이것이 정기신(精氣神)의 사상인데 기가 뭉친 것이 물질이요 기가 승화된 것이 정신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 발달된 신선사상 또는 기사상이 중국으로 들어가 도교(道敎) 또는 선도(仙道)를 이루어 이론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그것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 선도행세를 하였다 여기서 한국고유의 선도를 국선도(國仙徒) 또는 풍류도(風流徒)라 하였다.

수운의 <지기금지 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주문에서 지극한 기운 즉 지기가 하늘에서 인간으로 크게 내려오는데 그 지기가 바로 하느님이며 그 하나님을 인간이 모심으로써 조화가 정해진다고 한 것은 기가 하늘과 인간에 통하고 그 기의 지극한 것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기라는 것이 천지인에 통하여 하느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만물이 되며 일기가 천지인과 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운의 지기론(至氣論)은 지금까지의 한국의 기(氣)사상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군고기에 <하느님의 아들과 곰이 여자가 된 사람이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상징적(象徴的)으로 말한 것이다. 하느님과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일체 만물이 서로 통하여 신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사람이 신선이 될 수도 있는 일기대순론(一氣大巡論)을 수운은 지기대강론(至氣大降論)으로 결론지었다.

증산은 <흠치흠치 태을천상원군 흠이치야도래 흠리함리 사바아>(咻咻咻咻 太乙天上元君 咻哩哆耶都來 咻哩喊哩 娑婆訶)라는 주문에서 <흠치>는 호흡작용으로 기가 왕래하는 것을 말하고 <태을천상원군>은 그 기가 근원적으

로 발생하는 우주의 중심인 하느님이다. 전경 교운1-9에<…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母岳山 金山寺 三層殿 彌勒金佛)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하였는데 구천과 대지가 통하고 신령계와 인간계를 자유자재로 대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운의 지기대강론을 거쳐 증산의 일기대순론이 완성되었다.

4강령의 경천 수도에 있어서도 안심 안신에 있어서 심신이 모두 하나의 기를 통하는 것처럼 하늘과 도도 하나의 기로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을 곤경하는 것은 도를 닦는 것과 다름이 없고 기가 단련되면 기의 대순이 잘되어 천지인 사이를 자유자재로 왕래하여 영통(靈通)이 되고 도통(道通)이 된다. 대순종지에 도통진경(道通眞境)이라고 하였는데 경천 수도하면 도통이 되는 것이다.

증산은 최고신이면서 인간으로 화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인간도 증산처럼 최고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안심하고 안신하여 인간의 기운을 정화시킨 뒤에 나아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도를 닦은 것은 바로 정화된 마음의 기운을 더 한층 올려서 정화시키는 것인데 경천하면 바로 자기가 하늘이 되는 것이요 수도하면 바로 자기가 도가 되는 것이다. 대순진리회 요람의 훈회(訓誨)편의 첫째에<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안심 안신하고 경천수도 한 후에 도통이 된 경지에서 정화된 영기(靈氣)를 바로 보라는 뜻이다. 여기에 말하기를 그 마음에는 양심(良心) 사심(私心)의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이요 사심은 물욕에 의하여 발동되는 욕심이다.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인데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나는 언동을 감행하게 됨이니 사심을 버리고 양심인 천성을 되찾기에 전념하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마음을 속이는데서 비롯하여 일어나는 것이니 인성의 본질인 정직과 진실로서 일체의 죄악을 조절하라고 하였다. 기의 지극한 것이 하느님이요 양심이다. 하느님은 본래가 신성하고 마음은 본래가 착하다. 그 신성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사(邪)된 것을 믿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착한 마음을 버리고 사심을 내는 것은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안심 안

신 경천 수도는 바로 신성한 하느님과 착한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경천하는 것은 하느님의 신성성을 확신하는 것이요 도통하는 것은 신성한 하느님과 합치는 것이다.

2. 三要諦의 概觀

1) 誠

성은 정성(精誠) 성의(誠意) 성심(誠心) 성실(誠實)등으로 표현되듯이 어떤 절대자에 대한 지극귀의(至極歸依)의 뜻도 되고 자기자신에 대한 한 점의 속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오직 정성을 다하여 그 마음이 하늘에 미치고 오직 성실을 다하여야 그 마음이 사람에게 통한다. 마음이 대자연과 일치되고 마음이 만사람과 같다면 거기에 천지인을 관통하는 대도가 이루어진다. 정성을 다하였을 때 하늘에 통하기 때문에 그것을 천도(天道)라고 하고 정성을 다하였을 때 사람에게 통하기 때문에 인도(人道)라고 할 수 있다. 중용에 정성 그 자체는 천도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인도라고 하였는데(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지극한 정성은 지극한 기운이기 때문에 곧 하늘이요 지극한 정성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사람은 하늘이 된다고도 볼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특히 정성이 강조되는 것은 현대사회에 허위가 많고 하느님을 무시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성(誠)이란 글자가 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언행이 일치한다는 말이요 언행이 일치하면 진실이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위도 대순진리회요람의 훈회편 <원래 인성의 본질은 양심>이라고 하였고 중용에도 <하늘의 명령은 인성이라 하고 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고 하였고 맹자도 사단(四端)을 들어서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본래 사람이 천성으로 타고난 것이요 사람의 본성은 양심이라고 하였다. 이 양심을 따르는 것이 정성이다. 오늘날 허위가 난무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것이요 양심이 마비되면 밖에 있는 양심이라 할 수 있는 하느님도 속이게 된다. 오늘날 양심회복이 무엇보다도 시급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하는 행동 즉 치성(致誠)의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에서 예로부터

위로는 하느님을 위시하여 산천초목 토지가옥에 이르기까지 치성을 드렸는데 근자에 와서는 그것을 미신시 또는 우상숭배라는 비난도 있으나 천지만물에게 치성을 드리는 것은 결코 미신이니 우상숭배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의 양심을 깨우치는 행위다. 하느님이란 곧 밖에 있는 양심이요 양심이란 곧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2) 敬

경은 존경(尊敬) 공경(恭敬) 경건(敬虔) 경애(敬愛)등으로 표현되는데 하느님이나 신에 대하여 높이는 마음은 경건이라 하고 윗사람을 대할 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존경 또는 공경이라 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이지만 상대방을 높일적엔 경애라고 한다. 이와 같이 경이란 신성한 하느님이나 윗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낮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봉건적 수직적(封建的 垂直的) 덕목으로 간주되어 오늘과 같은 만민평등의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수평적(水平的)인 사랑(愛)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애라든가 친애(親愛)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동양에서는 경천(敬天)이라고 하여 하늘에 대해서는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한다고 하여 애인(愛人)이라고 해서 친밀을 표시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하느님까지도 사랑한다고 하여 애천(愛天)이란 말을 쓴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은 다같이 인간의 순수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공경이 지극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지극하면 공경하게 된다. 꼭 대등해야만 사랑하고 꼭 상하관계에 있어서만 공경하는 것은 아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경할 수 있고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할 수가 있다. 진정한 공경이라는 것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고 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공경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특히 경이 필요한 것은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이 극도로 추락하여 인간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간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선량한 마음 즉 양심을 공경하는 것이요 인간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존경받아서 마땅하다. 왜 인간이 존엄하나 하는 것은 인간에게 존엄한 양심이 있고 인간의 마음속에 지극히 존엄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하필 인간만이 존엄한 것은 아니다. 천지만물이 모두 존엄하다. 천지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엄할 뿐이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가 존엄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본래 천지인 일체요 하나의 기운(一氣) 또는 같은 기운(同氣)으로서 이루어진 천지만물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의 존엄성만 강조하고 다른 존재는 모두 인간이 지배하고 파괴하여도 좋다는 이를테면 인간이기주의(人間利己主義)가 지구의 생태(生態)를 파괴하고 그 결과로 인간자신도 파괴당하게 이른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요즈음 생태학(生態學)이나 환경론(環境論)이 대두하여 인간 이외의 자연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본래 착한데 사심 때문에 양심이 파괴되어가서 이제는 자연에 대한 공경은 물론 없고 인간에 대해서도 멸시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존경심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은 자연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이르게 될 것이다. 해월 최시형(海月 崔時亨)이 경천 경인 경물(敬天 敬人 敬物)의 삼경설(三敬說)을 주장한 것에 우리는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信

신은 사람 인(人)변에 말씀 언(言)자를 합쳐서 만든 글자로 사람이 하는 일이 말과 같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신에는 우주의 절대자를 믿는 신앙(信仰)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믿는 자신(自信) 또는 신념(信念) 상대방을 믿는 신임(信任) 신뢰(信賴) 신용(信用)등에서 널리 사회의 선의를 믿는 신의(信義) 신망(信望)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유교에서는 5륜이라고 하여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들었고 또 5대(大)라고 하여 인(仁)의(義)예(禮)지(智)와 더불어 신(信)을 들었으며 의와 합쳐서

신의(信義)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신망애(信望愛)를 강조하는데 신은 특히 하느님의 실재를 믿는 것이다. 기독교에 의하면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어 낙원에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다. 하느님은 그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사람들이 저지른 죄값을 자기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3일 후에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느님의 옆에 계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언뜻 믿기 어려우나 이것을 믿는 데에서 기독교는 시작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된다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합리적(合理的)이기보다는 비합리적(非合理的)이요 이성적(理性的)인 것보다는 초이성적(超理性的)인 영역에 속한다.

기독교에서 믿음을 강조하여 타력신앙(他力信仰)을 역설하는데 비해 불교에서는 자력신앙(自力信仰)을 강조하여 먼저 지혜(知慧)를 닦아서 스스로 깨달아 부처님이 된다고 한다. 언뜻 보면 불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나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소질 즉 불성(佛性)이 있다는 석가의 가르침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신앙이 대단히 중요시 된다.

동화를 창시한 수운도 성경신을 강조하였고 그것을 발전시킨 증산도 성경신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신은 하필 종교적 신앙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매우 필요한 윤리적 덕목이므로 하필 종교가 아닐지라도 인간이 사는 데에는 필요 불가결의 덕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신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는 첫째는 인간의 선량성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사회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우주의 신성성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량성 위에 세워지는 덕목이요 그 선량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서로 믿는데서 사회의 연대성이 강화되어 사람들이 사회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성이 선량하게 되어야 천지우주도 신성하게 되어 여기에 선량한 사람 선량한 사회 선량한 우주가 이루어져 인간 뿐 아니라 만물이 매우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인간이 악질화 되어가고 사회가 부도덕화하여 가며 자연이 황폐화되어 재해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믿고 사회를 믿고 자연을 믿어서 인간의 선량성과 사회의 연대성과 우주의 신성성을 회복하는 데에서만 치유할 수 있다.

4) 誠敬信 綜合

성경신의 삼요체 중 성은 천도(天道)요 경은 인도(人道)요 신은 지도(地道)가 된다. 삼요체 중 성인 천도는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길인데 천지만물에 대해서 정성을 바치고 살아야만 우리의 자연생활이 원활할 수 있다. 일목일초(一木一草)에 까지라도 정성껏 가꾸는 것이 천도인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연자원이 풍부해질 것이다.

삼요체 중 경은 인도인데 인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서는 결코 인간관계가 원활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남녀노소 상하귀천에 의하여 차별되지 않고 공경하여야만 비로소 인간답게 살수가 있다.

삼요체 중 신은 지도인데 지도는 지구상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에 필요한 덕목이다. 사회는 신으로만 설립되는 것이요 신이 없으면 사회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공자가 인민이 신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民不信不立)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민이 국가나 정부를 불신하면 국가나 정부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지만 하필 국가나 정부만 아니라 인민 서로 끼리도 불신하면 사회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신은 천지인을 종합하는 덕목으로 그 어느 하나도 없으면 천지인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지인이 일체이듯이 성경신도 일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종교마다 강령이 있고 신조가 있다. 불교에서는 불법승(佛法僧)을 3보(寶)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신망애(信望愛)의 3훈(訓)을 강조한다. 유교에서는

지인용(智仁勇)을 3달덕(達德)이라 하고 도교에서는 자애·검소·겸양(慈儉謙)을 역시 3보라고 한다. 불교와 도교의 3보나 유교의 3덕이나 기독교의 3훈이 대순진리회의 3요체와 비슷하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종지와 신조를 따로 내세워 종지(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는 그 사상적 철학적 이론적 기초를 말하고 신조는 종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기초를 말한다.

대순진리회의 종지는 그 우주관으로 천하대순론(天下大巡論), 인생관으로는 인존시대론(人尊時代論), 그 세계관으로 조화성경론(造化仙境論)을 내세우고 있다. 대순사상(大巡思想)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종지의 이론적 기초 위에 대순수도(大巡修道)라고 할 수 있는 실천적 기초가 있다. 수도에는 공부(工夫)와 수련(修鍊)과 기도(祈禱)가 있는데 성경신의 3요체를 굳게 지켜야만 안심안신, 경천수도의 4강령의 경지에 이르러 비로소 종지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종지를 실현시키려면 신조를 지켜야 하며, 신조를 지키려면 안심안신 경천수도의 4강령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4강령의 경지에 이르려면 먼저 성경신의 3요체를 실천하여야만 한다. 이와 같이 3요체는 4강령을 달성하는 기초요 4강령은 종지를 실현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3요체는 곧 종지를 실현하는 첫관문이요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의 선구자인 수운도 좌잡(座箴)에서 <나의 길은 넓고도 간단하다. 여러 말을 쓸 필요도 없고 별로 다른 도리도 없으니 바로 성경신 석자이니라.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라고 하였고 증산도 현무경(玄武經)에서 주우수명(宙宇壽命)에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는 기도주(祈禱呪) 다음에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의 다섯 글자를 씀으로서 동학사상이나 증산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기도주와 나란히 하여 성경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성경신 3요체는 불교의 불법승 3보와 기독교의 신앙애 3훈과 유교의 3덕과 도교의 자검겸의 3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이 <천지성경신> 이라고 한 것은 성경신이 사람이 지켜야 할 신조이지만 이것은 하필 사람에게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관통하여 그야말

로 천지인 삼계를 일관하는 신조라고 볼 것이다. 3요체의 성은 天道에 통하고 경은 人道에 통하고 신은 地道에 통하는데 천도는 대자연의 신비에 이르는 길이요 지도는 지구상에서 사회생활을 사는 기초를 이루는 것이요 인도는 사람으로서의 완성을 기약하는 것이다. 정성은 하늘의 길이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라고 한 중용의 말은 사람이 정성을 다하면 그 인격이 완성되어 하늘이 된다는 것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시킨다.>(至誠感天)이라는 말은 정성을 다하면 인간성 중의 하늘의 성품이 드러나 인간이 하늘이 되고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은 본래 천도이지만 이것은 인도에도 필요하고 지도에도 필요하다. 정성을 드러 하느님과 만나는 것처럼 정성을 드러야만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정성을 드러야만 사회와도 만날 수가 있다. 사람에게 드리는 정성을 경이라고 하고 사회에 드리는 정성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생각하면 성경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은 3위1체를 이루어 성이 있으면 경이 있고 성이 있으면 신이 있다. 또 그와 반대로 사람을 지극히 공경하면 그것이 정성이 되어 하늘에 닿고 사회를 지극히 신뢰하면 그것이 정성이 되어 하늘에 닿는다. 공경과 신뢰도 이와 같다. 공경이 지극하면 신뢰하는 것이요 신뢰가 지극하면 공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경신은 3가지를 갈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하나이다

Ⅲ. 三要諦와 他宗教 信條와의 關係

성경신에서와 같이 천지인을 일관하는 신조도 하나인 것 같이 다른 종교의 신조도 이와 비슷하다. 불교의 불법승의 3보도 불은 인도의 완성이요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하는 것이요, 법은 천도의 출현으로 천지의 대법칙이나 진리를 말하는 것이요 승은 인간완성을 기하고 천지법칙을 구명하기 위하여 지도 즉 사회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기독교의 신망애에서 신은 천도로서 하느님의 존재와 은혜를 믿는 것이요 망은 지도로서 장차 출현할 이상사회를 바라는 것이요 애는 인도로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성경신이 일체인 것처럼 불교에서도 불법승이 일체요 기독교에서는 신망애가 일체다. 천지인이 본래가 다르지 않고 일체를 이루듯이 불법승도 신망애도 성경신과 같이 일체다. 불교에서 승이 되어 수도를 하면 곧 불이 되고 불은 곧 우주의 진리인 법과 합친다. 그러므로 불법승이 하나다. 기독교에서 신을 믿으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망애가 하나다.

3요체 중 성은 천도요 경은 인도요 신은 지도라고 하여 천지인 일체를 이루는데 그 천도인 성에 해당하는 것이 불교의 법이요 기독교의 신이다. 성이 있음으로 해서 천지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것처럼 불교의 법이 있으므로 해서 천지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한다. 천지에 법 즉 진리가 없다면 천지도 없고 인간도 없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법을 중요시 하는 것은 대순사상에서 성을 중요시하는 것과 같다.

이와 똑같이 기독교의 신이 있으므로서 천지가 존재하고 인간이 존재한다.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 없다.

3요체 중 경은 인도인데 이는 불교의 불이나 기독교의 애와 같다. 경은 인간 존중의 표시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본시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불성을 완성한 부처를 인간의 완성으로 보고 존경한다. 기독교에서 사랑은 본래 하느님의 속성이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이 하느님을 믿는다면 인간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공경을 받는다.

3요체중 신은 지도인데 이는 불교의 승과 같고 기독교의 망과 같다. 신은 공동체 기초로 가정과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 사회나 국가나 지구와 같은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그 공동체의 기반이 되고 신이 없는 공동체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고 곧 붕괴되고 말 것이다. 불교에서 출가하여 수도하는 승가(僧伽)는 먼저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같은 뜻을 가진 동지의 승려들을 공경하고 신도를 정성껏 지도하여 불성을 깨치게 하는 불교에서는 필요불가분의 존재이다.

기독교에서 소망이라 함은 장차 자기가 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된 나라로 갈 수 있는 희망에 모든 고초를 잊어버린다. 소망은 믿음에서 생기고 소망을 사랑을 낳는다.

이렇게 볼 때 성경신은 불교나 기독교의 신조와 별로 다름이 없다. 불법승이나 신망애나 성경신과 같이 모두 천지인을 일관하는 천도요 지도요 인도인 것이다. 불법승에 철저하고 신망애에 열중하는 것은 곧 성경신도 이루는 것이다.

IV. 大巡信條의 文明史的 意義

1. 傳統性的 尊重

대순신조의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4강령과 성 경 신의 3요체는 오랜동안 동양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온 윤리적 덕목이요 종교적 수련이었다. 한국사람은 또 단군시대 부여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 오면서 제천(祭天)하고 치성(致誠)드리는 것을 범국민적 행사로 치러 왔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첫 번의 단군고기(檀君古記)에 옛날부터 하느님(桓因)이 계셨다. (昔有桓因)라고 하여 우리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앞서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을 존경하는 경천(敬天)의식이 강했다.

단군고기에 옛날부터 하느님이 계셨다는 그 하느님 대신에 하늘나라(桓國)가 있었다고 기록된 책도 있는데 하느님이나 하느님의 나라는 본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사실을 달리 말한 것뿐이다. 하느님이 계시면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요 하늘나라가 있으면 하느님이 계실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그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하늘나라에서 백두산에 내려오셔서 신시(神市)를 건설하시고 지상의 여성과 결혼하여 단군을 낳으시고 그 단군이 우리민족의 시조이시고 우리나라의 개국시조이신 것을 밝히고 있다. 신시라고 하는 것은 신선들의 나라 즉 선경(仙境)이다. 하느님의 아들 환웅의 배필을 삼국유사에서 곰여인(熊女)이라고 한 것은 곰은 고대인이 토텀(Totem)으로서 곰(熊)을 믿었던 족속을 의미하는 동시에 고대인이 어른 지배자 군주 하느님 등 높은 분을 <검>이라고 불렀는데 그 <검>의 음이 <곰>과 비슷하므로

웅녀(熊女)라고 하였는데 이는 곰의 여인이 아니라 <검의 여인> 즉 여왕 또는 성모의 뜻이다. 하늘의 아들과 지상의 여왕이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음으로 우리민족이 하늘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경천하고 제천하였다. 그러므로 고대에서는 생활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었고 그 제천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은 바로 군주(君主) 또는 임금이었다. 단군이라는 말은 박달나무 단(檀)자를 쓸 때도 있고 제단 단(壇)자를 쓸 때도 있는데 박달나무 단자를 쓸 때에는 밝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요 제단 단자를 쓸 때에는 하느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민족은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해마다 제천하였다. 그런데 그 제천을 할 때에는 전 국민이 모여서 즐기고 죄수를 석방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이 전국민이 함께 모여 제천하는 풍습은 고대로부터 죽 이어내려왔다. 제천은 나라의 임금님이 주재하는 전국적인 제천과 각 지방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동제(洞祭)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이 참가하였다.

한국민족이 이와 같이 거족적으로 거행하는 제천은 다른 민족에서는 드문 일이다. 중국은 하느님의 아들인 천자(天子) 즉 국가의 최고지배자인 임금만이 제천할 수 있고 일반 제후(諸侯)나 국민들은 그저 토지에 제사지내거나 또는 자기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데에 그치고 감히 제천은 못했다. 중국의 오래된 역사책인 후한서 동이전(後漢書 東夷傳)이나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에는 고대 한민족이 정월(正月)이나 십월(十月)에 제천을 하는데 나라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하고(國中大會) 날을 이어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추고(連日 飲酒歌舞) 감옥의 죄수를 풀어주기도 하는데(斷刑獄解囚徒) 이를 부여에서는 영고(迎鼓)라 하고 고구려에서는 동맹(東盟)이라 하고 예(濊)에서는 무천(舞天)이라 한다고 적었다.

일국의 제왕이 제천하는 장소는 원구단(圓丘壇)이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제천하는 장소는 서낭당(天王堂 또는 仙王堂에서 온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까지 국왕이 원구단에서 제천하였는데 조선왕조 때 유교의 대의명분론(大義名分論)에 걸려 원구단은 없어져서 그저 민간에서만 서낭당이나 뒷뜰에 정화수(淨華水)를 떠놓고 제천치성을 드렸다. 이와 같이 우리민족이 경천하는 풍속은 태고때부터 이어 내려오고 있으며 비록

국가적인 공식제천을 못하게 되었을 때도 민간의 제천은 끊기지 않았다. 그런데 근대에 서양의 과학문명의 유입으로 민간의 제천이 미신시 되어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대순신조에서 경천을 강조함으로 경천사상이 부활되고 있다.

신조의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4강령은 밖에 계신 하느님(상제님)과 안에 계신 하느님(양심)을 받드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마음과 몸을 가라앉히고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면 하느님(상제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느님께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면 영통(靈通)이 되어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다. 즉 경천은 곧 양심을 받드는 것이요 양심을 받드는 것은 곧 하느님을 받드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신조는 우리 민족이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는 전통이다. 대순신조는 바로 그 전통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문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을 토대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요 그러한 전통이 없으면 문명이 유지될 수가 없다. 전통은 뿌리와 같이 가지와 잎을 키워주는 모태다. 아무리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전통적 기반이 없으면 그 문명은 살아남지 못한다.

증산선생은 환부역조(換父易祖) 즉 아버지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전통을 무시하는 것을 나무라시고 원시반본(原始反本) 즉 처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경천도 이러한 전통 위에 서있다. 이 전통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가 있다.

대순신조가 문명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통을 중시 하는데 있다.

2. 普遍性的의 強化

문명이 전통에 기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통에 너무 얽매어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보편성을 상실하면 그 문명이 발전할 수 없다.

대순신조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에 입각하였지만 그것이 다른 종교의 신조와 어긋난다면 그 신조의 보편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대순신조의 성경신의 3요체는 하필 대순진리회의 신조가 될뿐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의 동양 3교의 신조와도 일치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신조

와도 일치되어 그 신조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고로 동서양에 많은 윤리덕목과 종교 신조가 있는데 이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3요체다. 지금 인간의 생활공간이 날로 확대해가서 옛날에는 집안에서만 살거나 한 마을에서만 살거나 또는 한 민족이나 한 국가 안에서만 살아왔지만 지금은 지구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우주가 우리의 생활권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시대에는 문명도 자기 민족의 전통성만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 세계적 전 인류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만 비로소 그 문명이 유지될 수 있다.

동양의 대표적 종교인 불교에서 불법승의 3보를 강조하고 서양의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가 신망애의 3훈을 강조한다. 불교는 자기 힘으로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님이 되는 자력(自力) 신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성(佛性)을 강조하는데 불성을 믿는 것은 곧 성선설(性善說)을 믿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原罪)를 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을 믿음으로서만 비로소 구원될 수 있는 타력(他力)신앙이다.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본래는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으므로 그 본성은 선량하다. 불교에서 사람에게 본래 불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물질에 가리워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불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무명(無明)으로 전락되어 버려 깨침이 없으면 구원되지 못하는데 그 깨침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법에 의지하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 불교나 기독교의 인성관(人性觀)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본래 착한 것인데 죄를 지어서 더럽혀진 것이나 본래 착한 것인데 먼지에 가려서 더럽혀진 것이나 그 더럽혀진 것은 마찬가지로 다. 대순사상에서도 사람의 본성은 양심인데 사심이 양심을 더럽힌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말이다. 그 더럽혀진 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과 믿음은 다름이 없다. 깨달음은 자력이요 믿음은 타력이며 자력인 때에는 그 깨달음의 대상이 바로 자기요 타력적인 때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느님이다. 자기와 하느님으로 따로따로 생각할 때에는 깨달음과 믿음이 같지 않은 것 같으니 본시 하느님과 자기자신이 하나일 때에는 깨달음과 믿음이

다르지 않다. 대순신조 3요체 가운데 정성은 하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는 덕목이므로 오직 정성스러우면 불교의 부처님이나 기독교의 하느님이 다르지 않고 하나로 합치된다. 정성이라는 것은 천지인을 일체화시키는 요체이다. 대순종지의 신인조화(神人調化)가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에서 신인격리(神人隔離)를 강조하여 하느님과 사람은 본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느님은 창조주(創造主)요 사람은 피조물(被造物)이 되어 영원히 일치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되나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이 꼭 초월적(超越的)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재적(內在的)으로도 계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였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고 한 것을 보면 예수는 하느님을 다만 초월적으로 계신다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사람의 안에 계신다는 것도 믿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불교에서는 자력신앙만 역설하는 것 같지만 근기가 약한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초월적인 신을 신앙함으로써 구제받을 수도 있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 25품 보문품(普門品)에 보면 「만약에 무량 백천만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그 음성을 보고 다 해탈을 얻게 된다。」 고 하였는데 이는 철저한 타력신앙이다.

이렇게 보면 불교에도 타력신앙이 있고 기독교에도 자력신앙이 있는데 자력신앙과 타력신앙, 내재적 신관(內在的 神觀)과 초월적 신관(超越的 神觀)이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기(根氣)에 따라 그에 적합한 신앙이 있을 것이므로 두 신앙은 서로 보완(補完)관계에 있다. 이것이 대순종지의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다.

성경신이 불교의 불법승의 3보와 기독교의 신망애의 3훈과 다르지 않은

것은 이미 말한바 있다. 즉 성경신을 다하면 불법승도 다하게 되고 신앙에도 다하게 된다. 증산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에 있어서도 결코 배타적(排他的)이 아니고 관용적(寬容的)이었다.

증산은 동서양을 결코 대립적(對立的)으로 보지 않고 상보적(相補的)으로 보았다. 전경 교운 1장9절에 「서양인 이마두가 동양에 와서 지상천국을 세우려 하였는데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느니라」 하였는데 증산은 동양에 천주교를 전파한 이마두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동서문명의 장벽을 허문 사람으로 보았다. 지구촌 시대와 우주시대에 있어서 동서문명이 다르고 불교와 기독교가 배치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성경신을 다하면 기독교도 충실해지고 불교도 충실해질 것이다.

성경신의 3요체는 결코 하나의 종교 신조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에도 통하는 보편적 신조라 할 수 있다.

문명사는 천존(天尊)시대 지존(地尊)시대를 거쳐 인존(人尊)시대로 가고 있지만 천지인이 일체인 대순사상에서 보면 지존은 천지인 공존(天地人共尊)시대이다. 그만큼 대순신조는 문명사적으로 보편성이 강하다.